



수산·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미국의 어업 자원회복 정책 동향

- 미국이 주요 소비 어종인 연어, 메기 등의 자원 감소를 경험하면서 미 연방 정부를 비롯한 주 정부는 어업 자원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함

■ NOAA, 부수어획 규제안 발표로 자원고갈 어종 보호

- 최근 미국의 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s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는 대서양 청어를 목표어종으로 어획하는 어선이 해덕과 같은 자원고갈이 심한 어종을 부수어획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였음
 - 'Framework Adjustment 43'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규칙은 미국 뉴잉글랜드 어업 관리위원회(New England Fishery Management Council, NEFMC)의 북동지역 다수어종 어업관리계획(Multispecies Fishery Management plan)을 변경할 예정임
 - 변경 전, NEFMC의 어업관리계획하에서는 저서어종 자체를 양육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부수어획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에 NOAA가 제안한 규칙은 대서양 청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선에 대해 부수어획되는 해덕의 최대량을 한정하였음
 - 청어잡이 어선 1회 출항시 부수어획할 수 있는 해덕의 양은 2천 파운드이며, 기타 대구, 넙치, 가자미류의 총 어획량은 100파운드임

- 또한 대서양 청어 가공업자들과 도매상인들이 청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해덕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하였음

【 뉴잉글랜드 어업관리위원회의 부수어획규제 변경 전후 】

변경 전	변경 후	
저서어종 양육이나 가공 행위 자체를 금지	생산자	부수어획되는 해덕의 최대량 설정, 최대량까지는 해덕을 잡도록 허용
	가공업자	분류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수어획물 보고

■ 붉은 돔 자원감소, 새우 트롤어업 부수어획이 원인

- 미 연방 어업위원회(Federal fishing Council)는 멕시코 걸프만의 붉은 돔(red snapper) 자원 감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에 대한 자원 회복 계획을 발표하였음
 - 미 전문가들은 붉은 돔 자원이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를 새우 트롤어업으로 인한 돔 자원의 부수어획에서 찾고 있으며, 부수어획을 감소시키기 위해 새우 트롤 그물에 돔이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붉은 돔 자원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쿼터량을 줄임으로써 현재 1인이 어획할 수 있는 돔을 4마리(1일당)로 한정하였음
- 이 같은 쿼터량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돔의 가격은 약 25% 인상되었지만 최근 돔의 부수어획량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스캐롤라이나주, 농어 잡이 어구 제한으로 쿼터제 효과적 관리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마이클 에슬리 주지사는 물무늬 농어를 어획할 시 사용하는 그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곧 발효될 예정임
 - 현재 물무늬 농어는 주로 예인망을 사용하는데, 심해의 크기가 큰 농어는 자망으로 어획하는 등 동시에 두 가지 어구를 사용해 왔음
 - 그러나 두 가지 어구를 사용하여 어획한 농어에 대해 쿼터량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한 가지 어구만 사용할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에 따라 어민들은 어획시 예인망과 자망 중 한 가지 어구만 사용해야 하며, 어획시에는 어구 방법을 바꾸어서도 안 됨

■ 부수어획규제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강조

- 미국은 부수어획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국제기구의 자원회복 계획에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UN은 멕시코를 비롯한 적도 인근의 12개 국가로 하여금 친환경그물 사용 촉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트롤어업으로 인한 부수어획량이 30~70%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음
 - 프로그램 참여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메룬, 나이지리아, 바레인, 이란, 콜롬비아, 쿠바,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 코바고, 베네주엘라, 멕시코임
- 친환경그물의 특징은 금속성 그릴(grill)이 달려있어 새우 이외 체장이 큰 어류나 거북이 등은 탈출 구멍(exit hole)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다른 그물은 그물 입구 근처에 큰 구멍을 내어 트롤그물에서 어류가 처음부터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음
- UNEP의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그물 사용 프로그램이 나라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 중이지만, 2008년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많은 국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미국의 부수어획규제 활동, 국내 어업에 미칠 가능성 배제 못해

- 최근 미국의 부수어획을 제한하기 위한 쿼터량 규제 및 어구의 규제는 곧 미국 어업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 자원감소 및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미 어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수산물 수입 및 수입국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례로 미국은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중국에 대해 반덤핑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하였으며 현재 대통령 검토만 남아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부수어획규제 활동 또한 국내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미국의 자원회복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내에서도 부수어획 규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때임

<정명화, jmh@kmi.re.kr>



주요뉴스와 분석

■ 중국, 양식 새우 농약 잔류 심각

- 중국 신시스보우(信息時報) 9월 1일자 소식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수산물품질검사 센터가 광둥성의 수산물에 대해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였는데
 - 총 288개 샘플에서 33개 품목이 불합격하여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락한 8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새우종묘의 농약잔류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모우밍(茂名)시의 13개 새우종묘샘플 중 7개 샘플에서 사용 금지 약품(Furazolidonum, Chloramphenicol PalmiTATe)이 검출되어 불합격률이 54%에 달했음
- 한편 중국식품산업망(中國食品產業網) 9월 11일 자 소식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중국산 양식수산물과 연근해수산물에 대한 전면금지령을 해제하기로 하였는데
 - 양식수산물(fish-farm) 특히 뱀장어와 새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중국 수산물의 안전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양식품목 특히 새우에 있어서 아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의 새우 양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의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산 새우 수입량과 금액은 각각 5만 5,866톤, 1억 8,500만 달러로 전체 새우 수입량과 금액의 53.7%, 32.3% 차지하여, 물량으로는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태국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하였음
- 이처럼 중국산 새우가 우리나라 새우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산 새우의 안전성 동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이은화, yhli19@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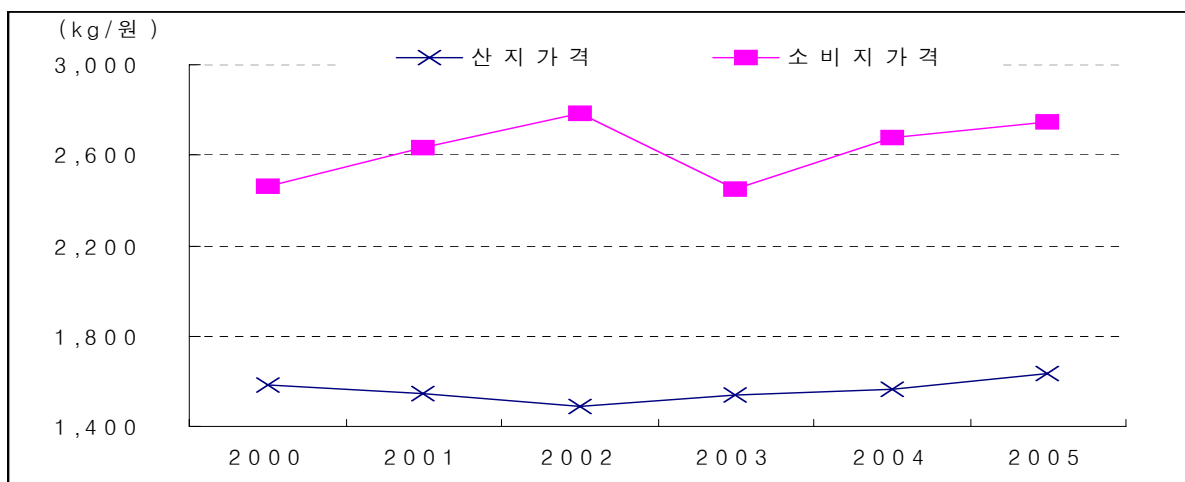
■ 수산청, 수산물 공급비용 축소 논의 착수

- 일본 수산청은 수산물 공급비용 축소를 목표와 관련시책을 검토하기 위한 '수산물

공급비용 검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5일부터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연내에 3~4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비용을 검토하여 수산기본계획 재검토 논의에 반영하고,
 - 또한 농림수산성이 “21세기 신세기 농정 2006”에서 밝힌 식료의 공급비용을 5년간 20%까지 삭감하기로 한 정책목표도 검토하기로 함
- 위원회의 멤버는 총 8명으로, 어업생산자·양식업자 및 계통, 중앙시장의 도·중도, 소매 등의 대표와 학식경험자로 구성됨
- 제 1차 회의에서는 수산물 유통비용 축소를 위한 검토 추진방법, 수산물의 유통비용 실태 및 대처 등을 의제로 삼기로 하였음
- 수산물은 다품종 소량 생산, 선도 유지 등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유통경로가 복잡·다단하며 이로 인해 전체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점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일부 품목 또는 지역에서는 직거래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임
 - 현재 산지와 소비지가격은 다음 그림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소비지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이 2.2%인데 반해, 산지가격은 0.6% 증가한데 머물러 있음

【 수산물의 산지 및 소비지가격 추이 】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수협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 참조

주 : 2000년 기준의 실질가격임

- 국내에서도 수산물의 소비지가격은 산지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정된 소비시장을 둘러싼 식품간 경합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가격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수산물 공급비용 축소를 위한 일련의 논의 실태와 도출된 정책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 국내 농산물의 가격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가격의 52.6%가 유통비용이며 그 비중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결과 참조)

<임경희, imkh@kmi.re.kr>

■ 필리핀, 대일본 FTA에서 다랑어 관세인하 유도

- 일본 내각의 승인 발표 후에 필리핀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이 마침내 체결되었음
 - 협정 결과 일본의 필리핀 다랑어 수입관세가 인하될 것이며 필리핀 다랑어 업계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양자 자유무역 협상으로 일본은 다랑어에 대한 관세장벽을 줄이는 대신 필리핀은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 발표하였음
- 이 협상은 9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회담 중에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서명으로 체결되었음
 - 양자협정 체결로 양국은 무역, 투자, 경제적 협력을 더욱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수산분야에서는 관세 축소로 인해 혼제된 다랑어의 수출이 증가될 것이고 다랑어 수출 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민다나오(Mindanao)의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1997년 5월 이후 필리핀 혼제 다랑어에 대해서 가공과정에서의 위해 요소 발생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었음
 - 양국간 협정을 통해 제재를 받고 있었던 혼제 다랑어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우리나라의 대일본 다랑어 수출 대부분이 혼제가공품이 아니고 냉동 제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FAO자료에 따르면 필리핀도 대일본 수출품에 냉동 가다랑어, 냉동 황다랑어, 냉장 다랑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본·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향후 이부분에서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경합이 예상됨

<강형덕, thymos@kmi.re.kr>

■ 호주, 태국산 다랑어 통조림 수입 증가하자 TRQ 관세 인상

- FIS(Fish Information & Service)의 지난 9월 11일자 소식에 따르면 호주와 태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호주 정부는 태국산 다랑어 통조림에 대해 TRQ 관세율을 2.5%에서 5%로 인상하였음
 - 호주와 태국은 지난 2003년 10월에 FTA를 체결하면서 태국산 다랑어 통조림에 대해 TRQ를 적용하였음
 - 그러나 올해 태국산 다랑어 통조림수입이 쿼터량을 초과하자 호주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현재의 할당량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호주-태국 FTA 협정문 Annex 5의 509항에 따라 다랑어 통조림 (HS 코드 1604-14-00)의 쿼터량을 매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할당량 이상으로 수입된 다랑어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정하였음
 - 현재 9월까지 태국에서 수입된 다랑어는 22,435톤 이상이며, 목표량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수입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5%의 관세율이 올해 말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하였음

【 호주-태국 FTA 관세할당량 】

단위 : kg

HS 코드	상세 내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604.14.00	가공 다랑어 (prepared or preserved tunas, skipjack and bonito)	21,366,277	22,434,591	23,556,320	24,734,136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dfat.gov.au/trade/negotiations/aust-thai/>)

<정명화, jmh@kmi.re.kr>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중국, 예먼,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사모아, 바누아투 등 국가에 대해 일부 수산물 관세 철폐

- 중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예먼,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사모아, 바누아투 등 국가에 대해 일부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는데
 - 수산물은 주로 다랑어, 가자미, 갈치 등의 냉동품과 신선·냉장 오징어, 낙지, 건조·염장 전복, 해삼 등이 포함됨

■ 지난시, 해삼 가격 80% 상승

-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는 양식해삼에서 어병이 발생하여 시장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가격이 80% 상승하였음
 - 산 해삼가격은 kg 당 120위안(14,400원)에서 220위안(26,400원)으로, 건조 해삼은 kg 당 3,200위안(384,000원)에서 4,800위안(576,000원)으로 올랐음

■ 톈진시, '고효율 메기양식기술' 개발하여 생산량 40배 늘려

- 톈진(天津)시 농업학원은 더런(德仁)수산양식유한공사와 공동으로 '고효율메기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연간 메기 생산량을 40배 늘릴 수 있다고 밝혔음
 - 이 기술을 이용하면 30~40일에 1.6~2g의 메기종묘를 80~100g의 성어로 육성할 수 있으며 생존율이 80% 이상임

■ 동지나해에 버려진 어업용전지, 연간 수백만개

- 중국 동해어정감독관리국은 중국이 동지나해 연안을 중심으로 연간 수백만개의 어업용전지를 바다에 버려, 수산물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제출하였음
 - 건전지는 수심 40~80m 지역에서 조업할 때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버려진 건전지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수은 등 중금속이 유출되어 어류·새우 등의 생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 동해어정감독관리국은 9월부터 어항에서 낡은 전지를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는

등의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지회수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일본수산청, 대형해파리 대책에 본격 나서

- 일본수산청은 내년도부터 대형해파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대형해파리 등 유해생물피해방지종합대책사업'(5년 계속사업)을 마련, 내년도 예산요구에 8억 4,600만 엔을 신청하였음
 - 작년도 대형해파리의 대량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대책으로 보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단기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형해파리 등 해적생물대책을 포함한 국가 직할의 신규사업으로 예산화한 것임

■ 해외 주요도시의 수산물 소매가격, 도쿄보다 높아

- 농림수산성이 2005년 11월 도쿄와 해외주요 5개 도시(파리, 런던, 제네바, 뉴욕, 싱가포르)에서 실시한 식료품 소매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랑어, 연어, 새우, 대구 알 등 주요 수산물의 소매가격 대부분이 도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 조사는 도쿄의 소매가격을 100으로 할 경우 여타 도시의 가격을 환산한 것으로써, 품목 중 다랑어통조림의 가격만이 도쿄가 여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음

■ 베트남, 대만으로부터 트롤어선 구입

-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연근해어선의 반 이상을 감축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지만 다랑어 어획 증가를 위해 대만 트롤어선 구입을 고려 중에 있음
 - 대만 트롤어선은 심해의 다랑어 어획을 위해 제작된 어선이므로 베트남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만 어선을 구입할 것이라 발표하였음

■ 영국, 유럽공동어업정책(CFP) 탈퇴 요청

-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들은 유럽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을 따르지 말도록 요청하였지만 정부는 이런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 이들은 이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한 대규모 어업감축과 강력한 어획량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럽 수산보호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미국 연방정부, 오리곤주와 캘리포니아주 연어 어업인 긴급 금융지원 고심

- 미국의 오리곤주와 캘리포니아 지역의 연어양식업을 사실상 실패로 보고 이 지역 어업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관계 산업 로비스트와 West Coast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해 조만간 국회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됨
 - 오리곤주와 캘리포니아 지역의 연어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연어 회귀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연어 자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즉, 캘리포니아 클라메스 강 연어 연평균 생산량이 약 88% 감소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1,600만 달러에 달함
- 미국 하원은 2007년 예산안에서 상무성에 대해 재난 지원금으로 200만 달러를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상원은 지원금을 1,000만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도출될 예정임

■ 칠레, 어업 및 양식업법 개정으로 유전자 조작 수산물 수입 까다로워져

- 칠레 정부는 어업 및 양식업법(General Fishing and Aquaculture Law No. 20.116)을 개정하여 유전자가 조작된 어종의 국내 반입 및 양식을 금지하거나 또는 엄격히 규제할 계획임
 - 관계법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어종이란 유전자가 변형되어 자연적으로 교배되지 않은 상태를 일컬으며, 이 같은 어종이 칠레내로 반입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에 대한 연구 수행 후 수입할 수 있게 됨
 - 또한 유전자 조작 어종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는 칠레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의 최고 법령을 통해서만 결정될 예정임

■ 노르웨이, 고등어 품질 저하로 수출 급감

- 노르웨이 고등어의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는 최근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품질 저하로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음
 - 최근 2주 동안 고등어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 수입상들은 품질이 나빠졌다고 해석하면서 수입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 그러나 노르웨이 전문가들은 고등어의 품질에는 이전과 변함이 없으며, 다만 주요 수입국인 일본은 크기가 크고 살점이 많은 고등어를 선호하는데 현재 크기가 작은 고등어가 어획되기 때문에 어획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을 이용하여 일본측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이 우려하고 있음